

# 대륙과학의 바뀐 목표 '추격'에서 '뛰어넘기'로

## 중국

**중**국의 '전국과학기술공작회의'에서는 중국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교육부, 국방과기공업위원회, 중국과학원, 중국공학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기술협회 등 관련 중앙기관과 각 직할시의 과학기술위원회와 각 성의 과학기술청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전년도의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발전현황을 되짚어보고, 그 해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논의한다. 2003년도는 지난 1월6일부터 7일까지 양일 간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올해의 전국과기공작회의에서 단연 강조된 화두는 '추격하기에서 뛰어넘기로의 변화'였다.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온 모방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거나 대등한 입장에서 성과를 내는 혁신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03년도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0차 5개년계획(10·5계획, 2001~2005)으로 결정된 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0·5계획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12개 프로젝트와 20개 전략적 중점 분야의 선정 및 집중 육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이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0.25미크론 이상의 집적회로·HDTV·제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TV 위성 직접 중계시스템·고속전철·30~70인승 터빈 분사형 비행기·생명공학 기술·농업시범사업·석탄액화가스·고부가선박·석탄 정화기술 개발이다.

### 서부대개발사업, 50년 동안 국가예산 60%

20개 중점 분야는 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보안 시스템·디지털 전자제품·신형 액정 모니터·전자부품 소재·한약·마이크로 전자재료·신소재·정보통신망·공장 자동화·디지털 제어시스템·첨단 교통시스템·환경산업·전지·청정연료 자동차·소규모 인공위성·인공위성 응용 산업·박막(薄膜)기술 응용산업 등이다. 19개 국가기관과 22개 성·시 공동으로 추진되며 투자액 중 국가재정으로 60여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40억 원은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기업이 지원한다.

둘째, 2002년 11월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全大)에서 제시된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발전단계를 온포(溫飽) → 소강(小康) →大同(大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먹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온포단계는 완료했고, 삶의 질을 높여 중산층을 양산하는 소강단계는 연해지역 등에서는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서부내륙지역이다.

2000년부터 향후 50년 동안 국가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는 서부대개발사업도 결국은 소강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정치적,

베이징에서 열린 오디오 비주얼쇼에 온 관람객들이 3D프로그래밍을 시청하고 있다.



경제적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다. 과학 기술부분도 여기에 동참함은 물론이다. 소강을 이룩하기 위한 과학기술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화(星火)계획'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농촌발전계획으로 농촌 지역의 향진기업경영을 활성화시키고, 농촌 공업화를 진행시켜 농가수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농촌의 산업구조 고도화·인력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위생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지식산업국, 중국과학원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약현대화발전강요>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 2003년 유인우주선 발사 계획

셋째, 국가과학기술중장기발전계획의 작성이다. 이미 16全大에서도 보고가 되었고, 2003년도 전국과기공작회의에서 등남(鄧楠) 부부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003년부터 11차 5개년계획(11·5 계획, 2006~2010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다. 주 내용은 2020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역량을 경제건설에 집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있다.

넷째, 국민적 자긍심 및 체제우월성 과시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이러한 맥락에서 우대해왔다. 2002년 12월 30일 중국정부는 '신주(神舟) 4호'의 발사 광경을 CCTV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미 2003년 유인우주선 발사를 공표한 바 있는 중국은 신주 4호를 유인우주선 발사 전 최종 테스트 형태로 추진했고, 우주선은 6일 18시간 동안 지구궤도를 108회 돌고난 후 내몽고 초원에 착륙하였다.

다섯째, 지방과학기술혁신문제가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863계획의 경우 매년 1억 원을 지방

과학기술발전에 특별 배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서부대개발이나 삼협댐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부터 요령성의 부신(阜新) 시범기술파크, 심양의 전통기술개조장비시범공장, 양릉의 농업기술시범구, 면양의 중앙산업화기지, 상해의 청년과학기술자 지원프로그램인 '계명성(啓明星)계획', 그밖에 지방특허지원 자금, 지방기업정보화지원자금 등이다.

여섯째, 사영(私營)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국유기업이 과도한 고용 및 사회복지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영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1년 말 기준 전국 302만 6천 개 기업 중 사영기업이 132만 3천 개(43.7%)를 차지해 국유기업 36만 9천 개(12.2%)와 집체(集體)기업 85만 8천 개(28.3%)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기술혁신, 인력 교육훈련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

글\_홍성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화대 고급방문학자로 현재 베이징 체류 중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 수준을 추격하기에서 뛰어넘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사회의 통신산업.



과학기술부